

## 2011년 하반기 사료시장 전망



김진형 전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1. 곡물가격은 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나?

특히 요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는 단연 식량문제일 것이다. 지구촌 먹거리의 중심에 우리 축산업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료이다.

사료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 원료이다. 그래서 우리의 축산업은 근본적으로는 식량문제의 틀 속에 포함되지만 어찌 보면 식량이라는 범주와 경합되는 듯한 인식도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급속한 인구 증가이다. 현재 69억 명의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다. 유엔경제사회국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 93억 명, 2100년 이전에 100억 명에 이를 것이란다.

둘째로 기후변화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 1°C 상승하면 2020년대 4억~17억 명이 물 부족 영향을 받으나 2050년에는 10억~20억 명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토질이 나빠지고 경작지 면적이 줄게 되어 곡물 생산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재앙의 징후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셋째는 환경보호와 대체 에너지 생산차원에서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곡물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 2.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미국 농무부에서 4월 발표한 올해 전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억 8,199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 중 사료곡물 생산량은 10억840만 톤이며 재고율은 12.6%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2%와 3.4% 감소된 결과이다.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 보다 1.7% 증가한 22억3,5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량이 생산량을 5,3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가. 에너지 원료시장

#### 1) 옥수수

기후변화에 따른 파종지연과 미국의 재고율 저조, 에탄올생산 증가로 옥수수 가격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미국의 파종면적 증가와 한국의 FMD, 일본의 지진, 러시아의 소맥 수출 재개로 인한 약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생산량은 2010/2011년도 멕시코, 중국이 전년대비 각각 8%, 6.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0.3% 증가된 8억1491만 톤 가량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약 2,260만 톤 정도 늘어난 8억3,832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4.2%,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34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 소맥

옥수수가격의 상승세에 동반 상승하는 소맥 시장이었으나 러시아의 소맥 수출 발표 이후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곡물 수요 증가와 호주의 생산 감소 등이 강세 요인으로 보인다.

생산량은 2010/2011년도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5.4% 감소한 6억 4,718만 톤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억6,226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나. 단백질 원료시장

#### 1) 대두

2010/2011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097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량은 전년도 2억3,796만 톤 보다 약 1,780만 톤 늘어난 2억5,57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2) 대두박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3% 정도의 대두박 공급량이 증가하고

소맥과 DDGS의 공급 증가로 연말에 가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2011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7,782만 톤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소비량은 1억 7,474만 톤으로 전년대비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31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을 분석된다.

**다. 운임, 환율**

하반기의 운임은 현재와 비슷한 PNW \$30USD, GULF \$50USD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도 1,100원 전후로 안정될 전망이다.

**라.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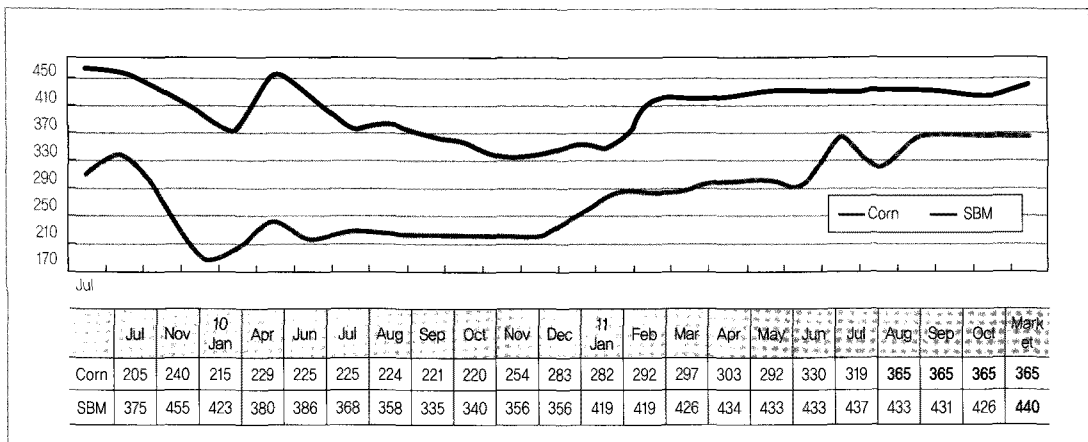
2011/2012년 밀, 대두의 생산량은

2010/2011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량 증가로 기말재고율은 각각 전년대비 0.5%P, 1.6%P 하락할 전망이다. 2011/2012년 옥수수 재고율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 전년대비 0.4% 상승하지만 2년 전보다는 1.8%P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미국 미시시피강 홍수 피해에 따라 향후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FAO 세계 곡물가격 지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아랍사태와 일본 대지진 등으로 곡물 선물투기가 감소해 2011년 3월에 하락했다. 하지만 밀, 옥수수 등 주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4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265.1로 전월 대비 5.5% 상승한 올해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육계사료가격은 20~30원 정도의 폭으로 6월 대비 상승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다.

〈표 1〉 옥수수/ 대두박 가격 동향



\* 굵은 글씨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산출됨

### 3. 국내 시료 수급 동향

지난 4개월(1월~4월)동안 총 사료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7.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된 FMD의 영향으로 양돈이 72.9% 수준으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고, 다음으로 낙농과 비육우에서 87%와 89.4%로 감소되었다. 양계도 AI의 영향을 받았으나 종계사료는 99.3%, 육계사료는 100.7%로 오히려 조금이나마 증가하여 업계에 큰 영향을 줄만큼 감소되지 않았다.

### 4. 육계 시료 수급 동향

<표 3>의 데이터를 토대로 하반기의 육계 사료 전망을 예측해 보면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평균 종계입식 마릿수가 전년과 비슷한 55만3천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 5. 2011년 하반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생된 FMD로 인해 지

<표 2> 2011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비교(2011. 1~2011. 4)

구분	2011. 4(A)	2011. 3(B)	2010. 4(C)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A/B(%)	A/C(%)
육추	22,021	24,087	28,144	91.4%	78.2%
	1.7%	1.7%	1.7%		
산란	167,939	173,709	169,362	96.4%	99.2%
	12.9%	12.3%	11.4%		
육계	184,629	154,001	183,388	119.9%	100.7%
	14.2%	10.9%	12.3%		
중계	30,331	30,765	30,537	98.6%	99.3%
	2.3%	2.2%	2.1%		
소계	404,920	382,562	411,431	105.8%	98.4%
	31.1%	27.2%	27.6%		
양돈	333,220	361,439	457,052	92.2%	72.9%
	25.6%	25.7%	30.7%		
낙농	95,522	108,808	109,776	87.8%	87.0%
	7.3%	7.7%	7.4%		
비육	358,002	447,500	400,647	80.0%	89.4%
	27.5%	31.8%	26.9%		
기타	110,294	107,079	109,305	103.0%	100.9%
	8.5%	7.6%	7.3%		
총계	1,301,958	1,407,388	1,488,211	92.5%	87.5%
	100.0%	100.0%	100.0%		

역적으로는 이동제한 등 육계산업의 손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오리는 지역적 밀집사육으로 인하여 AI가 발생되자 치명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겨울 FMD 발생기간 동안의 육계가격은 호황을 누렸었지만 이내 사육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봄이 되자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1년 동안의 국제 곡물 가격 상승보다는 다소 적은 약보합의 조금은 안정된 수급이 예상되나, 기후변화, 국제 경기흐름, 자금흐름 등등 변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서 불안하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중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AI의 재발이다. 사료시장의 변화보다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육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사료가격이 비싸질수록 생산성과의 함수관계는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5월, 6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육계시세로 생산자의 적자가 크다. 생산자로서의 시세 변동에 따른 영향력을 끼칠만한 역할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산성의 극대화로 단기 성과가 아닌 연간 수익을 올리는 것이 최선이다.

첫째가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방역이다.

둘째가 내부의 항병력과 면역성을 높여 주어 최고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

〈표 3〉 육계 전기사료 생산량/ 육계가격

